

격 려 사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본말사 주지 및
신도임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시 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했던 수많은 수행의
방식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수행과 깨달음만을 강조하지

않고 깨달은 바를 세상과 함께 나누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 불교는 깨달음을 자신만이 향유하는 ‘자리(自利)’에만 충실했을 뿐, 자신의 깨달음을 모든 중생의 구제를 위한 ‘이타행(利他行)’에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외형으로만 보면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덩치에 비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원효스님처럼 스님들이, 불교가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고틉을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우리 2천만 불자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터전속에서 함께 호흡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하락하였고, 우리들 스스로 결집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불교를 홀대하고 쉽게 생각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종교적 시혜 운운하며 불교를 홀대하는
작금의 상황을 낳았습니다.**

**지금 종단에서 외치고 있는 민족문화
수호 활동은 단순히 정부나 한나라당을
향한 요구나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변화하겠
다는 성찰과 쇄신을 위한 활동입니다.**

**민족문화수호 활동은 불교의 자주
선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국가정책에 의한 의존해 왔습니다. 이제는 불교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있어 국가의존적 보존관리를 탈피하고 종단의 자주성을 확립함으로써 불교문화재 소유자인 우리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선언입니다. 또한 민족문화수호 활동은 화합과 상생을 위한 활동입니다.

편향은 치우침을 뜻합니다. 국가가, 국회의원이, 장관이 균형을 상실한 채 개인의 편향적 종교관을 공적 영역에 반영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행위는 종교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8월 20여만명의
불자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범불교도
대회를 개최하여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종교편향 행위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성찰과
쇄신을 통해 불교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의를 모으는 자리이며,
이러한 결의를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족문화수호 활동에 대한
개인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시각이 종단의 지침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여, 종단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종단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입니다. 종단방침을 따르는 것은 대한불교조계종 종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문화수호 활동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피해가고자 순간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조계종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종교적

**가르침과 원력, 국민들의 비판과
격려속에서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지난날의 모습을
성찰하고, 변화와 쇄신하는 모습으로
나설 때만이 한국불교의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이
부끄럽지 않고 국민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진하고, 발원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1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